티라미스 속 딸기가 듬뿍 입 안에서 살살 녹네

SPC그룹, 봄철 '딸기 디저트' 선봬

SPC그룹(회장 허영인)이 봄을 맞아 제철과일인 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였다. 딸기는 달콤하고 상큼한 맛을 지녀 음료나 아이스크림, 베이커리 등 다양한 메뉴와 잘 어울려 봄철 가장 각광받는 원료다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잠바주스 등 SPC그룹 식음료 브랜드들이 선보인 대표 메뉴를 살펴봤다 .

잠바주스 '스트로베리 타퍼' ▶

●파리바게뜨 '딸기 듬뿍 티라미스' 등

파리바게뜨는 '아이 러브 스트로베리' 페스티벌을 통해 '딸기 듬뿍 티라미스', '순수(秀)우유 딸기' 등 케이크, '그대로 딸기롤', '달콤바삭 딸기 한입' 등 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베이커리 제품을 선보였다.

'순수(秀)우유 딸기'는 파리바게뜨의 인기상품인 '순수(秀)우유 케이크'에 딸기를 넣어 달콤함을 더해 인기다. '딸기 듬뿍 티라미스'는 마스카포네치즈에 딸기를 가득 넣어 부드러움과 상큼함을 더했다. '딸기우유 푸딩롤'은 상큼한 딸기로 만든 부드러운 우유푸딩이 어우러진 롤케이크다. 또 롤빵에 딸기잼을 넣어 만든 '그대로 딸기롤', '딸기모카크림빵', '딸기 소보루 크림빵', '달콤 바삭 딸기 한입', '별난 딸기 페스츄리', '미니딸기 페스츄리', '달콤 슈크림 딸기 브레드' 등 다양한 빵 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다.

●배스킨라빈스 '우유에 빠진 딸기' 등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배스킨라빈스는 우유 아이스크림과 상큼한 딸기가 어우러진 3월 이달의 맛 '우유에 빠진 딸기'와 3월 이달의 케이크 '딸기 마을'을 선보였다. 이 제품에는 설목장 유기농 우유로 만든 밀크 아이스크림에 상큼함을 더해주는 딸기 과육과 딸기 리본이 들어있다. 또 제철을 맞은 산청 딸기가 우유 아이스크림과 어우러져 있어 부드러우면서 상큼한 맛이 낸다.

이달의 케이크인 '딸기 마을'은 아이스크림 케이크 상단에 산청딸기를 올린 것이 특징이다. 우유에 빠진딸기, 엄마는외계인,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체리쥬빌레, 슈팅스타, 이상한나라의솜사탕, 아몬드봉봉, 블루베리치즈케이크, 쿠키앤크림 등 총 9가지 맛의 12조각으로 구성된 조각 케이크로 온 가족이 함께 나눠먹기 좋다.

●잠바주스, 생딸기로 만든 음료 3종

파리크라상이 운영하는 스무디 브랜드 잠바주스에서는 국내산 생딸기로 만든 음료 3종을 출시했다. 국내산 생딸기를 즉석에서 통째로 갈아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스트로베리 주스', 딸기와 함께 요거트를 블랜딩하여 맛은 물론 영양 밸런스까지 고려한 '스트로베리 요거트', 스무디에 그라놀라와 생딸기를 얹은 '스트로베리 타퍼' 등 3종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제철을 맞은 딸기는 당도가 높고, 향도 좋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다. 봄철에만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SPC그룹의 다양한 딸기 신제품과 함께 환절기를 건강하게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파리바게뜨 '딸기 듬뿍 티라미스'

현대차 '올 뉴 투싼', 더 커지고 단단해졌다

초고장력 강판 적용 비율 18→51% 확대
트렁크 공간 48L 증가…연비 14.4km/L

안전성, 디자인, 주행성능을 대폭 보강한 현대차의 올 뉴 투싼이 17일 출시됐다. 2009년 선보인 '투싼ix'에 이어 6년 만에 선보인 3세대 모델. 다양한 변화를 살펴보면 풀체인지에 가깝다.

우선 차체는 더 단단해지고 커졌다. 일반 강판 대비 무게는 10% 이상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2배 이상 높은 초고장력 강판 적용 비율을 기존 18%에서 51%까지 확대했다. 기존 모델 대비 전고를 10mm 낮추고 전장과 휠베이스는 각각 65mm, 30mm 늘려 레저 문화 확산에 알맞은 최적의 공간 활용성을 구현했다. 트렁크 공간은 기존보다 48L 증가한 513L의 용량을 제공한다.

엔진 라인업도 다양화했다. 유로6 기준을 달성한 R2.0 디젤엔진 외에도 다운사이징 엔진인 U2 1.7 디젤 엔진을 추가해 총 2가지 엔진이 탑재된다. R2.0 디젤엔진은 최고출력 186마력(ps), 최대토크 41.0kg·m, 공인연비 14.4km/L다. U2 1.7 디젤엔진은 최고출력 141마력(ps), 최대토크 34.7kg·m, 공인연비 15.6km/L다(2WD, 7단 DCT 기준, 17·18인치 타이어 기준). 특히 U2 1.7 디젤 엔진 모델에는 7단 DCT를 적용해 더 감각적인 주행성능과 고연비를 달성했다. 정차 중 엔진이 일시 정지되고 출발시 자동으로 시동이 걸려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인 고급형 ISG 시스템도 2WD 모델에 기본 탑재했다.

안전장치도 대폭 보강했다. 운전석, 동승석, 앞좌석 사이드, 커튼까지 6에어백시스템을 적용했다. 또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TPMS), 급제동 및 급선회시 차량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샤시통합 제어장치(VSM), 하체상해 저감장치(EFD) 등이 기본 적용됐다. 판매가격은 U2 1.7 디젤모델이 2340만~2550만원이며(2WD, 7단 DCT 기준), R2.0 디젤모델은 2420만~2920만원이다(2WD, 자동변속기 기준).

원성열 기자

현대차가 17일 올 뉴 투싼을 출시했다. 안전, 편의, 연비, 디자인 등 모든 면에서 상품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티볼리에서 티구안에 이르기까지 국산 및 수입차를 가리지 않고 중·소형 SUV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사진제공 | 현대차

■ 생활경제 단신

금호타이어, 신제품 출시 이벤트

금호타이어는 4월 11일까지 금호타이어 유통점인 타이어프로와 트럭·버스용 타이어 전문판매점인 KTS 및 전국 일반 대리점에서 신제품 출시 기념 이벤트(사진)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금호타이어의 최고급 프리미엄 타이어인 마제스티 솔루스의 페이스리프트 신제품 및 엑스타 4X II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마련됐다. SUV 타이어인 크루젠 프리미엄도 행사제품에 해당된다. 해당 기간 내 승용차용 타이어 4개를 구매하면 헤지스 고급 긴팔 티셔츠를, 2개 구매시에는 라푸마 고급 다용도 방석을 증정한다. 또 트럭버스용 타이어 구매 고객에게는 라푸마 고급 아웃도어 방풍조끼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금호타이어 홈페이지(www.kumhotire.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채전문 음식점 '산채가' 체인점 모집

한아름식품의 산채전문 음식점 '산채가'가 체인점 모집을 시작한다. '착한밥상', '자연밥상', '건강한 밥상'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산채가의 주 메뉴는 산채비빔밥(곤드레, 더덕, 시래기)과 산채초밥, 산채도시락이다. 강원도산 순수 국내산 산채만을 사용하며 본사에서 모든 메뉴를 완제품 형태로 공급해 일정한 맛을 유지한다. 창업비용도 경쟁력이 있다. 고급형 인테리어와 주방집기, 간판 등을 포함한 창업비용은 2000만원(10평)대로 실속 창업이 가능하다. 현재 산채음식은 대표적인 웰빙 음식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이 매우 높으며, 갈수록 대중화되고 있다. 문의 : 산채가 가맹본부 1544-3733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

KT, 인천 백령도에 '기가 아일랜드' 구축

기가 스토리 프로젝트 3번째 결과물
안전한 생활환경·교육·의료 등 지원

KT가 서해 최북단의 백령도에 기가 인프라를 구축했다.

KT는 17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에서 인천시와 함께 '백령 기가 아일랜드' 구축을 선포했다. 전남 신안군 임자도의 '기가아일랜드'와 경기 파주시 대성동의 '기가스쿨'에 이은 '기가 스토리' 프로젝트의 3번째 결과물. KT는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해 안전한 생활환경은 물론 교육, 의료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KT는 먼저 광대역 LTE-A와 기가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가 마이크로웨이브 장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부족한 안테나 도달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4안테나 기술(4T4R)'을 서해 5도에 시범 적용한다. KT는 또 재난 재해 등 비상 상황 시 각 대피소와 육지 간 원활한 통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LTE 기반 무전서비스를 적용하고 총 26대의 무전 단말기 '라져원'을 대피소마다 비치했다. 이 밖에 마이크로웨이브 등 장비가 소실되더라도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위성 광대역 LTE 기술을 세계 최초 적용했다. 이 날 행사에선 남극의 '장보고 과학기지'와의 통화를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주민들의 의료·교육 지원에도 나섰다. 보건지소를 통해 스마트워치 100대를 심신 취약계층에 제공해 건강 정보를 관리하는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당뇨 검진 솔루션인 요닥 서비스도 도입했다.

양방향 온라인 멘토링 플랫폼 '드림스쿨' 시스템도 적용했다. 유학생들이 백령초등학교와 북포초등학교 학생들의 멘토가 돼 외국어 회화지도는 물론 문화체험을 지원한다.

KT 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부사장은 "KT는 5년 안에 전국 500여개 유인도에 기가인프라를 구축해 어떤 상황에서도 불편 없는 통신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KT가 백령도에 기가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원키로 했다. 오성목 KT 부사장(왼쪽)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바다에 나간 어민과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KT

The 리뷰 | 푸마 러닝화 '이그나이트'

푸마의 '이그나이트'는 푸마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총동원된 러닝화다. 미드솔의 이그나이트 폼과 뒤축의 포에버 폼이 마치 젤리 위를 달리는 듯한 쾌감을 제공한다. 사진제공 | 푸마

우사인 볼트가 선택한 러닝화 젤리 밟는듯한 쿠셔닝 신세계

EVA 소재 깔창…엄청난 반발력의 비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신는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지금이라면 0.1초 만에 대답할 수 있다. 그 기분, 상당히 괜찮았다.

푸마가 내놓은 러닝화 '이그나이트(IGNITE·12만9000원)'는 우사인 볼트가 훈련 때 착용하는 신발로 유명하다. 물론 실제 경기 때는 스파이크를 신는다. 러닝화의 생명은 쿠셔닝이다. 나이키, 아디다스, 아식스 등 세계적 브랜드들이 기술력과 비용을 아낌없이 쏟아 붓는 부문도 바로 이 쿠셔닝이다. 이그나이트는 푸마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총동원된 '신발 위의 신발'이다. 오직 러닝만을 위해 태어난 '달리기 머신'이라고 보면 된다.

그 핵심은 이그나이트 폼이다. 미드솔의 이그나이트 폼이 혁신적인 쿠셔닝을 책임진다. 여기에 포에버 폼이 가세했다. 뒤축에 삽입된 포에버 폼이 이그나이트 폼과 함께 충격을 분산시키고 내구성을 높여준다.

이그나이트 러닝화를 신으면 우선 가벼움에 놀라고, 다음 피부처럼 찰싹 붙는 피팅감에 또 한 번 놀라게 된다. 여기에 젤리를 밟는 듯한 발바닥의 쾌감. 그 쾌감은 뒤꿈치까지 고스란히 이어진다. 70% 힘주어 디디면, 100%의 반발력이 올라오는 듯한 착각마저 든다. 이 엄청난 반발력의 비밀은 EVA 소재의 깔창이다. 갈매기 모양의 세브론 미드솔 측면 패턴도 숨은 기술. 이그나이트 폼에 최상의 반발력을 싣는다.

이 심플한 신발 속에 이 많은 러닝 기술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다른 러닝화와 다른 점이 확실히 느껴진다"는 우사인 볼트의 말은 거짓이 아닐 것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쿠팡이 '2시간 내 배송 서비스도입' 등 새 사업전략으로 e커머스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 전략을 발표하고 있는 김범석 쿠팡 대표. 사진제공 | 쿠팡

쿠팡 "주문 2시간 내 집으로…"

직매입 제품 직접 배송…"아마존 두렵지 않다"

"아마존 한국 진출 두렵지 않다."

소셜커머스 쿠팡은 1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시간 내 배송 서비스 도입' 등 새로운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직접 발표에 나선 김범석 쿠팡 대표는 "국내 e커머스 업계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위탁판매 플랫폼에 가깝다"며 "쿠팡은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직접 제품을 매입하고 자체 물류시스템을 갖춘 것은 물론 한 단계 더 나가 직접 배송까지 한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쿠팡은 이날 또 하나의 새로운 차별화 서비스도 공개했다. 바로 '2시간 내 배송'이다. 기저귀와 생활용품 등 주부 소비자들이 급하게 필요한 상품을 주문 후 2시간 내에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쿠팡은 우선 올 상반기 내 경기도 일산지역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뒤 확대할 방침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물품을 직접 매입하고 전국 단위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IT기술 기반 물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담 직원이 배송을 하기에 가능하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

쿠팡은 현재 경기와 인천, 대구 등 7개 물류센터(12만5672m²)를 운용 중이며, 쿠팡맨 1000여명을 채용해 직매입 제품에 한해 직접배송하고 있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인 9만9173m²의 인천물류센터를 신축 중이며 2016년까지 전국 단위 9~10개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서울과 경기 및 6대 광역시에 당일 배송망을 구축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직접배송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무모한 투자라며 우려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는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쿠팡은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을 계속할 것이며 이러한 도전이 바로 또 다른 혁신을 이끌어낼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